

‘효도권 확대·백종원 협업’...장성군, 적극행정 돋보였다

업무 적극성 등 평가...상반기 우수사례 5건 선정 김한중 군수 “군민 행복 실현 중점 업무 임할 것”

장성군이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권 확대, 지역상생을 위한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협업 등 적극행정을 펼쳐 주목 받고 있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적극행정 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장성군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담당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적극행정

적격 여부, 중요도·난이도, 담당자의 업무 적극성 등 5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효도권 지원금 인상 및 사용처 확대 ▲쭈더본코리아와 함께하는 상무대 지역상생급식 ▲상습 침수지역 민원 해결 ▲첨단 3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확보 등 5건이 최종 선정됐다.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다.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



장성군이 효도권 확대 등 5개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사진은 김한중 군수가 어르신들에게 약속을 건네고 있는 모습. <장성군 제공>

가능하며,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5천원, 연간 총 18만 원을 지급했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연간 사용액을 2

만원으로 33% 늘리는 한편,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권’을 도입했다. 필요한 행정 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조속히 마치고 지난 4월부터 확대 지원 중이다.

백종원 대표의 (쭈더본코리아와 지역 외식업체, 청년 세프들이 손잡고 ‘상무대 MZ세대 장병 맞춤형 특식’을 제공한 사례도 우수 적극행정에 이름을 올렸다.

장성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품평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쭈더본코리아와 지역특화음식 개발,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성군은 내년 3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장성을 넘어 전남의 음식문화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8년째 침수 피해를 겪어 온 북일면 신흥리 주민들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한 마을 배수로 설치 사업, 첨단 3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0억원 확보 등도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장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장성을 만들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적극정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장흥군-대만 슬로시티, 교류 활성화 ‘시동’

보림사·편백숲 우드랜드 등 郡 주요 현장 방문

장흥군과 대만 슬로시티 네트워크가 양국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교류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대만 슬로시티 관계자 15명이 양국 슬로시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장흥군의 주요 현장 방문에 나섰다.

장흥군을 방문한 대만 슬로시티 네트워크 관계자는 대만 슬로시티 도시 및 후포지역 시장,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대만 방문단은 김성 장흥군수가 주관한 환영행사에 참석한 후 현장 방문을 시작했다. 김성 군수는 환영행사에서

장흥군 슬로시티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대만 슬로시티 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는 여명중(呂明忠, Lu, Ming-Zhong) 슬로시티 산이 시장은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히고, 대만에 실천 가능한 슬로시티 우수사례에 대한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환영행사에 이어 보림사, 편백숲 우드랜드, 무산김주식회사(슬로시티 인증 지역 특산물) 등 지역 슬로시티 자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다예원과 무산김주식회사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청대전과 무산김 생산과정 견학·시식 등의 일

정을 소화했다.

장흥군은 지난 2022년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에 재지정돼,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 자격을 갖게 됐다.

지난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다가, 2013년 재인증에 고배를 마신 후 9년 만의 성과다.

김성 군수는 “장흥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 청정 자연이라는 핵심 자원에 슬로시티의 가치를 더했다”며 “이번 대만 슬로시티 네트워크와의 교류는 슬로시티 장흥의 발전 뿐만 아니라, 장흥군 특산품의 해외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기자



대만 슬로시티 네트워크 관계자 15명이 최근 장흥군에 방문해 양국 슬로시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장흥군의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장흥군 제공>

여수 섬 지역 특성화 사업 4개소 선정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기록

여수시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 남면 금오도(송고), 화정면 개도(신흥)·하화도, 묘도(창촌) 등 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주민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해 주력사업을 발굴하고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은 총 4단계의 사업 구조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주민 역량강화 조성사업을 추진, 기준 충족 시 2단계 ‘마을 주력사업 발굴 및 선정’, 3단계 ‘주력사업 확장 및 연계 인프라 구축’, 4단계 ‘주민 자립역량강화 교육·컨설팅’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고도화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 ‘특수상황 지역 내 개발 대상(188개 섬)’ 중 20개 섬에 1단계 사업 신청을 받아 서면·현



장 심사를 거쳐 10개 섬을 최종 선정했다.

그중 여수시는 4개 섬(금오도, 개도, 하화도, 묘도)이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다 선정을 기록했다. 1단계

사업비로 각 섬에 4억원씩 총 16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이 가진 특색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섬 기반 시설 확충으로 2028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에 선정된 ‘안도’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화태도’는 2단계 사업이 확정돼 2년간 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2024년에 선정된 ‘금오도(직포)’, ‘초도(의성, 대동)’ 3개 소에는 1단계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군,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야간 특별점검

상습민원 발생 사업장 등 집중 단속

담양군이 장마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발생을 우려해 사업장·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 점검에 나섰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장마철 공공수역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근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해 야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장마철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단속했으며, 민원 민발 사업장에 대해 악취 포집을 진행하고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양인경 환경관리팀장은 “장마철 야간시간에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민원이 있어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국민 없이 128이나 담양군청 환경과(061-380-3067)로 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고흥군이 지난 19일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 愛 고흥 愛’ 고흥스태이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지난 19일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 愛 고흥 愛’ 고흥스태이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 스테이’ 준공

郡, 폐건물 리모델링...생활인구 유치·지역경제 활력 도모

고흥군이 도심 속 폐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아늑한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도시민 생활인구 유치와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나섰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류제동 군의장, 송형곤 도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두 지역 살아보기 참여 세대 등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 愛 고흥 愛’ 고흥스태이 준공식을 개최했다.

‘고향올라(GO郷 ALL來) 두 지역 살아보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고흥에 관심을 갖고 여가, 휴양, 체험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과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생활인구 유치와 지역경제 활력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그동안 폐건물로 방치돼 각종 민원을 야기 시켰던 옛 한전 사택을 매입하고 국비 5억원, 도비 1억5천만원 등 총 10억5천만원을 투입, 내부 공간 리모델링과 외부 환경정비 등을 통해 12세대를 갖춘 아늑한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 교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시 교통체증으로 사고위험이 빈번했던 건물 후면담장

을 허물어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월까지 모집 완료된 12세대 171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나만의 텃밭 체험, 고흥 인문학탐험, 고흥 유랑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공영민 군수는 “도시민들이 고흥에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흥스태이 문을 열게 됐다”며 “두 지역 살아보기가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기자

“화순 청춘신작로서 무더위 날리세요”

매주 금요일 바다분수·길거리 공연 등 즐길거리 선배

화순군은 22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전·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춘신작로 일대에서 길거리 공연(버스킹) 및 바다분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버스킹은 매주 금요일마다 관내 5-7세 어린이 및 광주·전남권 청소년·대학생이 참가해 댄스, 악기연주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청춘신작로 바다분수는 여름철(6-9월)에 매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가

동하고,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추가 운영하고 있다. 바다분수는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유지관리해 화순의 여름철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버스킹 관람 및 바다분수 물놀이와 먹거리 판매 등을 위한 플라마켓(간편식, 공예체험, 공예품, 농산물 등)까지 열리고 있어 불거리·즐거거리·먹거리 삼박자를 갖췄다. /화순=이병철기자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구례군은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19개 항목에 더해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2건이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각 500만원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

한 안전사고 및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1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면 별도의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구례=임종길기자